

# 침체된 타선에 불붙인 이범호, KIA 방망이 '활활'

부진 주전 내리고, 강공 2군 콜업 '빈타'에서 '폭풍 안타'로 뒤집혀 김규성 결승타... 벤치 작전 탁월 가을야구 위한 '5월 반등' 기대도

**TIGERS** 올시즌 초반 타선의 동반 침체로 연패를 거듭하던 KIA타이거즈가 키움 히어로전을 통해 뒤바뀐 모습을 보이며 연승 체제로 돌입했다. 그동안 '믿음의 야구'로 일관했던 이범호 감독의 전략 수정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KIA는 지난달 25일 김도영의 부상 복귀를 기점으로 타선의 응집력이 살아나면서 지난달 26일 광주 LG전을 시작으로 3연승을 달렸지만 다시 타격 부진으로 광주 NC전 패배 이후 내리 3연패를 당했다.

4월 30일 광주 NC전 5안타, 5월 2일 광주 한화전 6안타, 5월 4일 광주 한화전 3안타 등의 빈타가 이어졌고 득점도 3경기 합쳐 3점을 뽑는데 그쳐 연패의 원인이 됐다. 특히 4일 한화전에서는 선발 내일이 7이닝 동안 1실점 10탈삼진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선발 7이닝 3실점 이하) 호투를 펼쳤는데도 차갑게 식은 방망이 탓에 패배했다.

이에 이범호 KIA 감독이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부진했던 선수들에게 믿음을



KIA타이거즈 김규성(오른쪽)이 지난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원정 경기 2차전에서 8회 대타로 나서 결승타를 성공시킨 뒤 윤해진 1루 주루코치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갖고 계속 기용했던 이 감독은 지난 5일 고척 키움전을 앞두고 최근 부진했던 주축 선수들을 퓨처스리그(2군)으로 내려 보냈다.

2군행 대상자는 최원준(외야수), 김호령(외야수), 김태군(포수)이었다. 최원준은 올시즌 3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10에 머물렀다. 지난달 말 부상으로 이탈한 나성범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콜업된 김호령도 '호령존'이라고 불릴 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증됐으나 지난 시즌(64경기·타율 0.136)과 마찬가지로 3경기 7번의 타석에서 단 1개의 안타로 생산하지 못했다. 김태군 역시 25경기에서 타율 0.208로 부진했다.

이들 대신 2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정해원, 김석환, 한승택을 콜업했다. 지난 2023 KBO 신인 드래프트 3라운

드 22순위로 KIA에 입단한 2004년생 정해원은 올시즌 2군에서 22경기에 출전해 27안타(2홈런) 2도루 10볼넷을 기록하며 출루와 주루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여 1군 콜업과 함께 1군 선발 데뷔전 기회까지 얻었다.

김석환도 7일 오전 기준 2군에서 무려 25경기 29안타(9홈런)의 기록으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홈런을 많이 치며 공격력

을 과시하고 있다.

한승택은 올시즌 김태군과 한준수의 공석이 생겼을 때 대체 포수로 1군에 올라와 8경기에서 타율 0.333를 기록하고 있다.

2군에서 주목받는 선수들이 올라오고 주전급 선수들이 내려가자 덕아웃에서는 긴장감이 생겼다. 5일 키움과의 원정 1차전에서 3점 홈런을 포함해 15개의 안타를 쏟아내며 13-1로 크게 승리했다. 키움과의 원정 2차전에서는 이범호 감독의 대타 전략이 승부를 갈랐다. 이날 8회초 무사 1·2루 상황 정해원 대신 대타로 타석에 들어간 김규성은 번트 자세를 취해 전진수비를 이끌어낸 뒤 방망이를 고쳐 잡아 강공으로 페이크 번트 앤 슬래시를 성공시키며 1타점 결승타를 때려 팀의 승리를 안겼다.

이로써 위닝시리즈를 확보한 KIA는 시즌 경기 전체로 보면 16승 18패지만 최근 10경기에선 5승 5패로 승률 5할까지 회복했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불펜도 안정적인 구위를 회복했고, 김도영의 복귀와 이범호의 전략으로 타선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 양현종의 첫 승이자 KBO 역대 두 번째 개인통산 180승, 김도현의 첫 승 등 토종 선발도 점차 분위기를 회복하는 모양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써 선두 레이스를 달려야 할 KIA가 가을을 위해 5월에 치고 올라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천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 호남대 볼링, 대구시장배 '금빛 스트라이크'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 여대부 5인조·남대부 2인조

호남대 볼링부가 제30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에서 금빛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백아현·손주은·백지현·김수빈·김하연·정민서는 지난 1일 대구 대경볼링장에서 열린 대회 여대부 5인조전에서 6경기 합계 5988점(게임평균 199.6점)으로 배재대(합계 5938점)와 계명문화대A(합계 5745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백아현은 "이번 대회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개최될 전국체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승민·한영재는 지난달 29일 열린 남대부 2인조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호남대 여자 볼링부 선수들. 호남대 제공

남승민·한영재는 6경기 합계 2795점(게임 평균 232.9점)을 기록, 전남과학대(합계 2766점)와 위덕대(합계 2745점)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호남대 볼링부는 이번 대회에 정경인 지도자와 15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2개 획득의 성과를 거뒀다. 최동환 기자

##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 연맹회장기 4연패 '눈앞'

동주여중 60-39 꺾고 결승행 수피아여고는 준결승 진출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가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4연패를 눈앞에 뒀다.

수피아여중은 7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여중부 준결승전에서 동주여중을 60-39로 꺾고 결승에 안착했다.

수피아여중은 8일 낮 12시30분같은 장소에서 수원제일중과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수피아여중이 수원제일중을 이기면 2022년부터 4년 연속 이 대회 정상에 오르게 된다. 수피아여중은 이날 준결승에서 동주여

중을 상대로 21점 차 대승으로 경기를 끝냈다.

수피아여중 이주미는 21득점 20리바운드 2스틸 6블록슛으로 맹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나현이 15득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 2스틸 2블록슛, 송지은이 13득점 13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 2블록슛으로 힘을 보탤다.

광주 수피아여고는 같은날 경남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결선(8강)에서 상주여고를 106-52로 대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수피아여고 임연서(29득점)와 송지후(25득점), 김담희(16득점), 이가현(12득점), 정지윤(12득점) 등 주축선수의 고른 득점이 승리 요인이었다. 최동환 기자

## 광주FC 부주장 김진호, K리그 통산 100경기 달성

지난해 광주FC 입단해 맹활약 "최고의 모습 보이는 선수 될 것"



프로축구 광주FC의 '언성 히어로' 김진호가 K리그 통산 100경기를 달성했다.

김진호는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김천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2022년 강원FC에 입단해 K리그 무대에 데뷔한 김진호는 입단 첫해부터 K리그 1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는 등 28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이후 2024년 광주로 이적한 김진호는 곧바로 주전 풀백으로 자리 잡았고 팀 내 최다 출장(36경기) 기록을 세우는 등 팀 내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4-2025 ACLE 모든 경기에 출전하는 등 광주가 달성한 'K리그 사·도민구단 최초 ACLE 8강 진출' 역사에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100경기를 맞이한 김진호는 "데뷔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0경기를 달성했다는 것이 무척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늘 경기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는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질 전북현대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 홈경기에서 김진호의 100경기 기념 시상식이 진행된다. 김진호의 100경기 출장 기념 특별 굿즈



광주FC 김진호가 K리그 통산 100경기를 달성했다. 사진은 김진호가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김천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모습. 광주FC 제공

(키링, 머플러, 패치, 포토카드) 판매도 진행되며 굿즈는 7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경

기 당일에는 경기장 내 MD샵에서도 판매된다. 민천기 기자